

# 1982년 서울올림픽 유치 기념 썰

## 썰 도안 선정의 배경

1981년 9월 30일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온천 휴양도시인 바덴바덴(Baden-Baden)에서 올려 퍼진 '서울 코리아'의 외침은 88 서울 올림픽을 염원한 온 국민의 마음속에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다. KOC(당시 대한올림픽위원회)는 1979년에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를 성공리에 마친 직후 88올림픽 유치를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이후 1981년 2월 26일 정식으로 IOC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범국민적으로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다.

우리나라는 분단국으로 남북이 대립상태에 있으므로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 성화를 서울로 가져와야 하며 평화와 우호의 광장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쳐, 서울과 끝까지 유치경쟁을 펼친 일본의 나고야(名古屋)를 압도적인 표차인 52:27표로 물리치고 1988년 제24회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체신부에서는 이를 기념하고자 88 서울올림픽 유치기념우표[그림 1]를 1981년 10월 30일 발행하였으며 이후 KOC는 호돌이[그림 2]를 88 서울 올림픽의 마스코트로 IOC의 승인을 받은 후 1983년 11월 공식지정되었다.

결핵협회는 올림픽 유치가 결정된 이듬해인 1982년에 당해년도의 썰 도안을 88 서울올림픽 유치 기념 썰로 결정하고 썰 도안은 한국의 유망종목으로 10개 경기종목을 선정하여 1982년 10월 썰 1,365만매를 발행하였다.

## 썰과 우표도안의 비교

당시 선정된 썰 도안은 양궁, 축구, 육상, 사격, 권투, 레슬링, 사이클, 역도, 농구, 수영의 10개 종목이다. 결핵협회의 서울올림픽 기념 썰은 발행일이 1982년 10월이나 체신부에서 발행된 서울올림픽 기념우표는 썰 발행 2년 반 후인 1985년 3월 20일부터 시작하여 1988년 5월 6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발행되었다. 이처럼 서울올림픽 기념도안은 썰이 우표보다 먼저 발행되었으며, 경기 종목 표기도 양궁은 궁도로, 권투는 복싱으로 인면에 표기되어 있다.

서울올림픽 기념 썰과 기념우표의 도안을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보면 썰 도안은 유희의 질감이 느껴지고, 우표의 경우는 운동 경기를 캐릭터로 형상화한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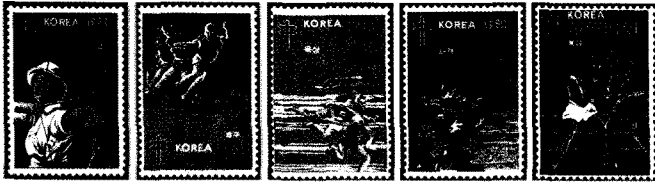
썰 도안자 오동환(吳東煥)은 한국조폐공사 디자인실 소속으로 1970년(골목놀이), 1977년(자연보호-조류), 1983년(야생동물), 1995년(남해바다의 신비)의 썰을 도안한 전문 디자이너이다.



[그림 1]  
88 올림픽유치 기념  
우표



[그림 2]  
88 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



[그림 3] 서울올림픽 쉘 도안(양궁/축구/육상/사격/권투) : 1982년 10월



[그림 4] 서울올림픽 우표 도안(양궁/축구/육상/사격/권투) : 1985년/198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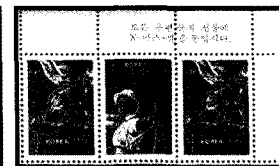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올림픽 쉘 도안(레슬링/사이클/역도/농구/수영) : 1982년 10월



[그림 6] 서울올림픽 우표 도안(레슬링/사이클/역도/농구/수영) : 1985년/1986년/198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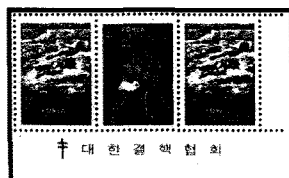
[그림 7] 1코너의 제자



[그림 8] 2코너의 제자



[그림 9] 3코너의 제자



[그림 10] 4코너의 제자

### 1982년 쉘 전지의 구성

발행된 쉘 전지 도안의 배열은 종목별로 5매씩 세로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매 × 10줄로 총 50매의 쉘로 되어 있다.

쉘을 수집할 경우 전지 수집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변지(邊紙; 쉘의 주변 테두리)에 다양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인데, 1982년 쉘 전지의 경우에도 변지에 디자이너(오동환)와 인쇄소(상문사 인쇄소)가 표기되어 있어 이를 규명할 수 있는 좋은 증거 자료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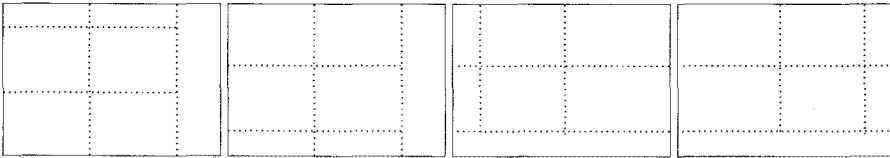
전지의 1코너 [그림 7]에는 “내가 산 크리스마스 쉘 결핵을 없앤다”라는 적색의 제자(題字; 변지에 발행목적이나 표어 등의 문구가 인쇄된 것)가 있으며, 2코너 [그림 8]에는 청색과 적색으로 “모든 우편물과 선물에 X-마스 쉘을 붙임시다”라는 제자가 두 줄로 인쇄되어 있다.

또한 제3코너 [그림 9]에는 디자이너와 인쇄소 명칭이 청색으로, 영문 “CHRISTMAS SEAL 1982”가 적색으로 표기되었고, 4코너 [그림 10]에는 적색의 복심자마크와 명판(銘版; Imprint)으로 청색의 “대한결핵협회”가 인쇄되어 있다.

### 쉘 전지의 천공분류

전지에 구멍을 타공(打孔)하는 것을 분류할 때 천공이 변지 끝까지 타공된 경우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상발형(上抜形), 하발형, 좌발형, 우발형이라고 부른다. (색이 있는 부분이 인면이고 흰 부분은 변지임)

1982년 발행된 쉘 전지(쉘 50매)에 대



▲ 상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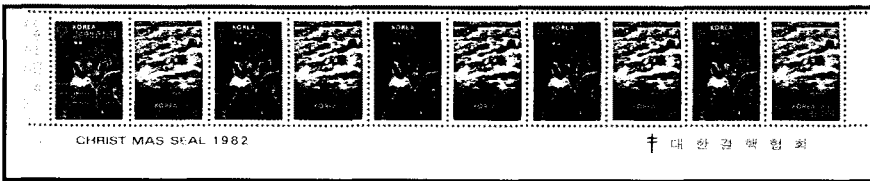
▲ 하발형

▲ 좌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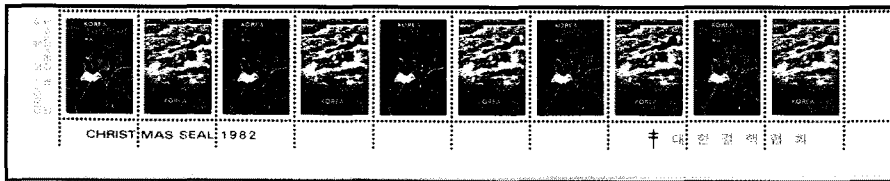
▲ 우발형

해 필자가 수집한 것을 기초로 분류하면 ①상발형 ②상-우발형 ③하-우발형의 세 가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①상발형] 이 경우는 상발이므로 상변지만 끝까지 천공이 되어 있고 하변지는 천공이 안 되어 있다. 좌우변지의 경우는 천공이 있으나 변지 중간까지만 천공되어 있는 형태이다.



[②상-우발형] 이 경우는 상발 및 동시에 우발형이므로 상변지와 우변지는 끝까지 천공이 되어 있으며, 하변지는 천공이 있어도 변지 끝까지 되어 있지 않다. 좌변지의 경우는 천공이 없는 형태이다.



[③하-우발형] 이 경우는 하발 및 동시에 우발형이므로 하변지와 우변지는 끝까지 천공이 되어 있다. 좌변지는 천공이 없으며 상변지는 천공이 있으나 변지 끝까지 되어 있지 않은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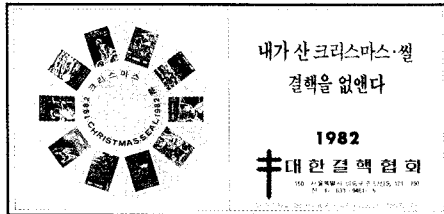


썰을 전문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하고자 한다면 전지 1매만 수집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번지의 천공이 서로 다른 종류별로 전지를 수집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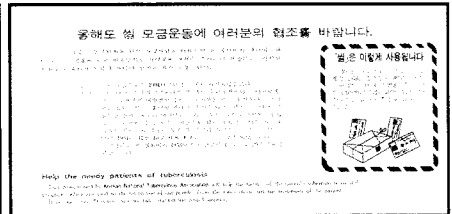
### 썰 폴더와 기념 썰 수집첩

1982년의 경우 썰 이외에 썰 엽서나 썰 팜플렛 등 기타 썰 관련 자료는 제작되지 않아 매우 아쉽지만, 썰 폴더(Folder)는 매년 제작되었다. 썰 폴더는 대부분 썰 보다 입수가 어려워 연도별 썰 폴더를 전량 수집하려면 매우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한다.

1982년의 썰 폴더[그림 11]을 보면, 썰 10매를 원형으로 배치하고 전면에 표어, 연도, 복잡자마크 및 협회 명칭을 기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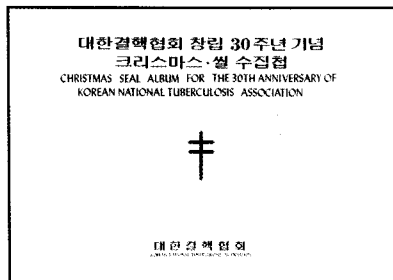


[그림 11] 썰 폴더(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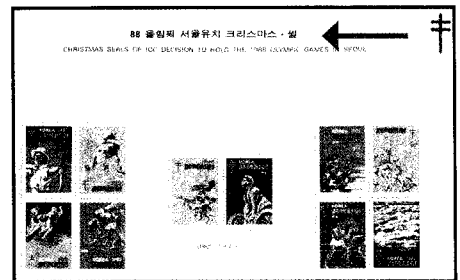


[그림 12] 썰 폴더(뒷면)

아울러 결핵협회 창립 30주년인 1983년에 협회에서는 창립기념으로 500부 한정기의 기념 썰 수집첩(Seal album)[그림 13]을 비매품으로 제작한 바 있으며, 수집첩의 맨 뒤쪽에는 [그림 14]와 같이 1982년 발행썰을 “88올림픽 서울유치 크리스마스 썰”이라고 기재하여(그림 속 화살표 참조) 서울올림픽 유치 기념 썰임을 알려주고 있다. †



[그림 13] 창립30주년 기념 썰 수집첩(표지)



[그림 14] 기념 썰 수집첩(마지막 쪽)

### 참고자료

- 제24회 서울 올림픽대회 기념첩(발행 체신부) 1988년
- 우표포털(www.kstamp.go.kr)

이 글을 쓴 남상욱(halon21@chol.com)님은 썰 수집가로 서초우취회 부회장 및 우리협회 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